

옛 문척교 '철거 vs 보존' 주민 의견 묻는다



옛 문척교는 1972년에 설치된 길이 420m의 교량으로 섬진강으로 나뉜 구례읍과 문척면·간전면을 50년 동안 연결하여 주고 있는 구례군민들의 애환이 서린 다리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2020년 수해 원인 제공" 대체교 설치 방침 주민들 "수해와 무관 원점 재검토 해야"... 구례군, 여론조사 의뢰

구례군이 섬진강 옛 문척교에 대한 철거 논란과 관련 보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철거 방침에 따라 시공업체까지 선정돼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옛 문척교와 관련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보존·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군은 조사 결과를 최종 입장으로 정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 최종 보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서 지난 5일 문척면 종합체육관 문일관에서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 문척교 철거와 보존에 관한 토론회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지만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원만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문척교가 2020년 8월 수해 원인이 아닌데도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수해의 주범으로 만들고 철거를 하려 하고 있다"며 "원점에서부터 백지화하고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자리에서 답변에 나선 영산강유역환경청 박세욱 하천국장은 "철거 여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도 결정 하지 못하고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0년 8월 수해가 발생한 후 옛 문척교가 수해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해 이를 철거하고 현 위치보다 하류 쪽에 대체 인도교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구례군은 교량 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자만 어장 재생 추진 보성군 공모사업 선정

보성 여자만 해역이 청정어장으로 재탄생한다. 보성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여자만 해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2023년부터 500ha 규모의 어장 재생을 추진한다.

청정어장 재생은 과밀 노후화한 어장을 청정어장으로 개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여자만 해역은 참꼬막·새꼬막·맛조개·바지락 등 보성 지역 주요 패류 생산지이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인 벌교꼬막의 주산지이기도 하다.

보성군은 2021년부터 특산물 해역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 사업 선정으로 여자만 해역에 대한 사업비도 추가 확보하게 됐다.

보성군은 고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로 참꼬막·새꼬막의 여름철 대량 폐사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장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상세 조사와 실시설계, 오염퇴적물과 폐기물 처리, 황토 살포와 바닥그리 등의 환경 개선, 정화 완료 어장 대상 종자 입식 때 종자 구입비 지원, 해양환경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도시공원·놀이시설 등 市,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조례에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어린이 놀이시설·학교(반경 50m 이내)·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반경 10m 이내) 등이다.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심이나 해변 공원 등에서 음주를 즐기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아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편백 숲 코스모스 꽃밭에서 힐링~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정원에 활짝 핀 '코스모스'.

<고흥군 제공>

고흥 팔영산 치유의 숲 인기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정원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 조성된 코스모스 꽃밭은 편백나무에서 뿜어 나오는 피톤치드 향과 함께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 인기를 끈다.

코스모스와 울창한 나무가 어우러진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피톤치드를 발산하는 편백나무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약 400ha에 이른다.

탐방객은 숲길, 테라피센터 등에서 다양한 치

유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어 숲속의 안식 공간으로 꼽힌다.

치유의 숲 '테라피센터'에서는 고흥의 특산물인 유자와 석류 그리고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수에 몸을 담그고 싶 수 있는 차별화된 수(水) 치유와 함께, 족욕과 반신욕도 즐길 수 있어 더 특별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팔영산 편백나무 숲 정원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예쁜 꽃을 지속적으로 식재해 치유의 숲을 찾는 탐방객에게 힐링 여행지로써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양 구봉산 전망대에 세계 거장 조형물 조성

광양시의 대표 관광시설인 구봉산 전망대 인근에 체험형 조형물이 건립된다.

광양시와 포스코(부회장 김학동)는 최근 광양 구봉산에서 지역 랜드마크 자리 잡을 조형물을 건립해 구봉산을 명소화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포스코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포스코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경영이념 선포 후 공공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포항 환호공원에 스페이스 워크를 건립한 데 이어 광양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부지로 예정된 광양 구봉산 정상 전망대 일대는 과거 봉화대가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로써 광양제철소와 이순신대교를 품은 광양만의 멋진 파노라마 전경과 푸른 숲이 장관이다.

포스코는 광양시와의 상생협력을 상징하는 빛이 언제나 흐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컨셉을 '빛의 물결'로 잠정 결정하고, 연내 세계적인 거장을 선정해 광양의 강렬한 햇빛과 은은한 조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을 이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세계 최고 작가의 작품이 완성되면,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시너지 효과는 물론 광양을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마을로 빨래차 갑니다"

곡성군 이동빨래방 서비스 인기

시골 마을을 찾아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곡성군 이동빨래방이 인기가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복지 서비스다.

매주 목요일 마을을 찾아가 농기계 수리와 한방 및

양방 진료, 전기 안전 점검, 이동빨래방, 이동목욕, 안마, 깔깔이, 맞춤형 상담, 방역 소독, 주택소방안전점검, 생활불편 해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육과농협과 연계한 이동빨래방 세탁 서비스가 가장 인기가 있다. 빨래 차량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교령의 주민들은 평소 빨래가 어려운 큰이불을 세탁하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벌인다.

육과농협은 연말까지 68개 마을을 주 4회(월·화·목·금요일) 순회하면서 취약계층 이동세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